



‘마무리 윤석민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4연패 뒤 2연승으로 기사화됐던 KIA 타이거즈가 28일 롯데 자이언츠를 홈으로 불러들여 4월 승률 끌어올리기에 나선다. 다음달 1일부터는 4년 만에 군산을 방문, 한화 이글스와의 주말 3연전을 치른다.

지난주 두산 베어스, 삼성 라이온즈와의 일전을 벌인 KIA는 2승4패를 거두는 데 그쳤다. 선발진은 2.19의 평균자책점으로 마운드를 지키며 견제를 과시했고, 타선도 7개의 홈런을 쏟아내며 힘을 실어줬지만 문제는 볼펜이었다.

21일 두산전에서 5-4로 앞선 9회 5실점하며 역전패로 한 주를 시작했던 KIA는 22일에도 9회 3실점하며 이를 연속 역전패를 당했다. 삼성과의 24일 경기에서는 나지안·최희섭의 백투백 홈런에도 불구하고 8회 진갑용에 의한 투런 홈런을 맞으며 또 다시 무너졌다. 23일 두산과의

KIA, 볼펜 요동에 보직변경 ... 초반 레이스 승부수 이번주 롯데·한화와 격돌 ... 방망이 상승 V사냥 기대

0-0의 지리 했던 승부는 연장 10회 볼펜의 붕괴로 0-3 패배로 끝이 났다. 특히 마무리 한기주는 지난주 세 차례 등판에서 모두 불펜 세이브를 기록하며, 시즌 평균자책점이 6.75까지 치솟았다.

선발로 출격했던 서재응, 로페즈, 윤석민, 양현종, 구름슨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볼펜이 요동치면서 구름슨 홈런 1승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뒷문 단속 살포로 눈앞에서 3승을 날린 KIA는 에이스 윤석민을 마무리로 보직변경하고 롯데, 한화와의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KIA는 한기주가 안정세를 돌아설 때까지 윤석민에게 마무리를 맡길 계획이다.

윤석민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면서 3.29의 평균자책점으로 8승 10패 26 세이브 9홀드를 기록했었다.

윤석민의 투입으로 볼펜을 강화한 KIA는 높은 마운드와 목직해진 방망이를 내세워 승리 사냥에 나선다.

마운드 힘은 팀 평균자책점(3.00)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KIA가 롯데(5.55)와 한화(5.61)에 훨씬 앞서있다.

타선에서는 한화가 (타율 0.275·홈런 29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KIA(타율 0.258·홈런 21개)와 롯데(타율 0.250·홈런 23개)의 호각지세다.

다행히 개막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던 방망이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 전망은 밝다.

지난해 48개의 홈런으로 팀 홈런부문 최하위의 수모를 당했던 KIA는 벌써 21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홈런 부문 4위에 올라 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홈런군단' 한화와는 8개 차이이다.

2008시즌 6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데 그쳤던 최희섭은 24일 시즌 7호포를 쏘아올렸고, 나지안도 5개의 홈런을 때려냈다. 여기에 김상훈·김원섭도 각각 3개와 2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팀의 장타력에 힘을 보태고 있고, 신인 안치홍도 2개의 홈런을 신고했다. '이적생' 김상현은 26일 경기에서 삼성 마운드를 침몰시킨 생애 첫 만루포를 쏘아올리는 등 타선에 한층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다.

'한 방' 있는 세 팀의 이번 주 성적표는 '한 방'에 갈릴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머리부상’ 한화 김태균 이상무

26일 경기 도중 머리를 다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주포 김태균(27)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검사결과를 받고 27일 오전 퇴원했다.

한화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 담당 의사가 ‘김태균의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 더는 조치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오전에 퇴원해 숙소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균은 전날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두산 포수 최승환과 홈에서 충돌한 뒤 쓰러지다 헬멧이 벗겨지는 바람에 머리를 강하게 땅에 내리찍었다.

김태균은 이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한동안 눈을 뜨지 못했으나 서울의료원으로 옮겨져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한 결과 다행히 뇌진탕 증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태균의 출장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김인식 한화 감독은 “병원에서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김태균과 직접 얘기를 나눠보고 오늘 경기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협뉴스

위창수, 아쉽다! 1타차

PGA 챔피언십 준우승

위창수(37·테일러메이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620만 달러)에서 공동 준우승을 차지했다.

위창수는 27일(한국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인근 루이지애나TPC(파 72.7천34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최종라운드에서 버디만 4개를 뽑아내 최종합계 13언더파 275타로 로리 사바티니(남아공), 찰스 하웰 3세(미국)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1.2번을 연속 버디를 잡아낸 위창수는 전반에만 3타를 줄이며 본격적으로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단독 선두였던 제리 켈리(미국)에 1타 뒤진 상황에서 위창수는 마지막 18번홀(파5) 버디를 노렸으나 3.7m 거리에서 시도한 버디 퍼트가 살짝 오른쪽으로 빗나가 연장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위창수는 11번(파5), 12번(파4)홀에서 연달아 2m를 약간 넘는 거리에서 버디 기회를

잡았으나 살리지 못한 장면이 아쉬웠다.

먼저 경기를 마친 위창수는 이후 켈리가 1타를 잃었다더라면 연장전에 갈 수 있었지만 켈리가 마지막 홀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파를 지키면서 공동 2위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위창수는 2007년 US뱅크 챔피언십, 2008년 발레로 텍사스 오픈에 이어 투어에서 세 번째 준우승의 성과를 냈다.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은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묶어 1타를 줄여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로 공동 19위를 차지했고 최경주(39·나이키골프)는 버디 3개,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로 1타를 잃어 6언더파 282타, 공동 24위로 대회를 마쳤다.

켈리는 '199전200기' 끝에 2002년 7월 이후 6년여만에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2002년 7월 웨스턴오픈에서 우승한 이후 200번째 대회에서 다시 정상에 오른 켈리는 정확히 6년 9개월 18일만에 개인 통산 3승째를 올리며 우승 상금 113만4천달러를 획득했다.

최나연, 아쉽지만 다음기회에

LPGA 코로나 챔피언십 3위

이선화·위성미 '톱10'

골프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홀로스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오초아는 27일(한국시간) 멕시코 모렐리아 트레스 마리아스 레시덴티알골프장(파 73.6천539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로나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5타를 줄여 합계 25언더파 267타로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24언더파 268타)의 추격을 1타차로 따돌렸다.

2006년 대회에서도 우승했던 오초아는 작년 이어 다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고국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나흘 내내 선두 자리를 지킨 오초아는 지난 2월 혼다PGA 타이랜드에 이어 시즌 2승을 올려 삼관왕을 향해 질주했다.

최나연(22·SK텔레콤)은 3타를 줄여 합계

18언더파 274타로 3위에 올랐다. 최나연은 시즌 두번째로 '톱5'에 들었지만 우승자와 타수차는 너무 컸다.

1타차 단독 선두로 출발한 오초아는 10번 홀까지 보기없이 버디 4개를 낚아 3타를 줄이며 추격한 페테르센과 격차를 2타로 벌렸다.

오초아는 11번홀(파4)에서 1타를 잃은 뒤 페테르센이 12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공동 선두를 허용하기도 했지만 15번홀(파4)과 16번홀(파5)에서 1타씩을 줄이며 다시 2타차 1위로 나섰다.

페테르센은 18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았지만 오초아를 꺾을 수는 없었다.

작년에 2승을 거뒀던 이선화(23·CJ)는 마지막날 5타를 줄이며 공동 7위(15언더파 277타)에 올라 올 시즌 처음 '톱10'에 진입했다.

재미교포 위성미(20·나이키골프)는 합계 14언더파 278타를 쳐 한국계 비키 허스트(19)와 공동 10위에 자리했다.

/연협뉴스



27일 오후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 43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대회 광주일고와 경남고의 경기. 경남고 김귀용이 9회말 1사 3루 상황에서 신창민의 내야 땅볼 때 홈에서 아둥되고 있다. /연협뉴스

심동섭 호투 ... 광주일고 8강

대통령배 고교야구 '영남강호' 경남고 2-0 꺾어

대통령배 6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광주일고가 난적 경남고를 꺾고 8강에 합류했다.

광주일고는 27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경남고와의 제43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전에서 선발 심동섭의 호투에 힘입어 2-0으로 경남고를 꺾고 8강에 진출했다.

경기 시작과 함께 광주일고가 선취점을 뽑았다. 1회초 중전안타로 출루한 선두타자 손준혁이 보내기 번트로 2루를 밟은 뒤 4번 강백산의 적시타 때 홈에 들어오면서 1-0이 됐다.

3회에는 9번 허일의 3루타가 터졌다. 허일은 손준혁의 희생 플라이 때 홈인하며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올렸다.

하지만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7·8·9회 광

주일고에 위기가 찾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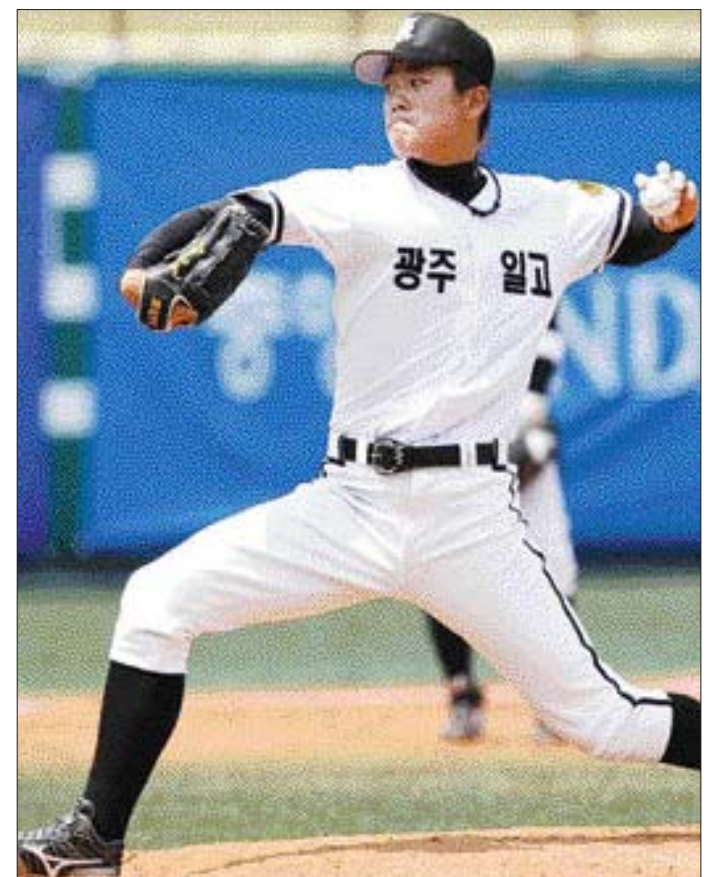
7회 경남고 김준호의 2루타에 이어 희생번트가 나오면서 1사 3루. 김귀용의 내야땅볼 때 홈에 들어오던 김준호가 아웃 되면서 실점 위기를 넘긴 광주일고는 8회 2사 만루에서 김준호를 내야 플라이로 돌려세우며 두 번째 고비를 넘겼다.

9회 1사에서 경남고 김귀용의 3루타가 나오면서 마지막 고비를 맞은 광주일고는 심창민의 땅볼 때 홈에 들어오던 주자를 다시 한 번 잡아내며 2-0의 승리를 지켰다.

선발로 나온 심동섭은 6과 3분의 1이닝동안 3피안타 6탈삼진으로 경남고 타선을 막으며 팀 승리의 주역이 됐다.

이날 승리로 광주일고는 지난달 27일 황금사자기에서 경남고에 2-3으로 석패한 이후 꼭 한 달 만에 설욕전에 성공했다.

광주일고는 29일 오후 6시30분 충암고와 준결승 진출을 다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발로 나온 심동섭은 6과 3분의 1이닝동안 3피안타 6탈삼진으로 경남고 타선을 막으며 광주일고 승리의 주역이 됐다.